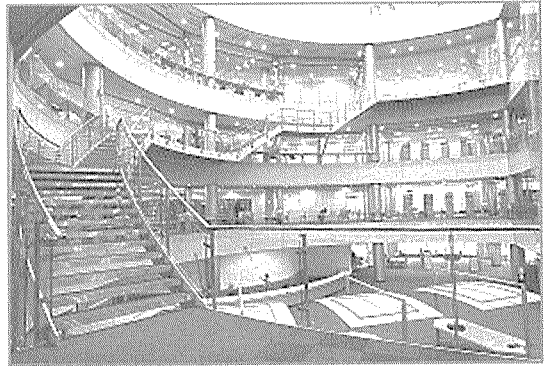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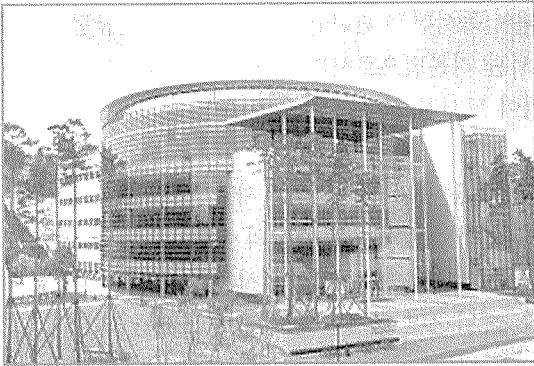


### 시·공간을 초월해 전 세계의 지식과 연결되는 곳

## 포항공과대학교 청암학술정보관을 다녀와서



(2001년 5월 착공, 2003년 12월 완공된 포항공과대학교 청암학술정보관. 500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7,500평 규모로 건립. '청암(靑巖)'은 박태준 포항공대 설립이사장의 호.) (사진 : 포항공대 청암학술정보관 제공)

최근 대학가에서 미래형 도서관인 전자도서관 개관이 줄을 잇고 있다. 그런데 2003년 9월 개관한 인하대학교 정석학술정보관도 그렇고 이번엔 방문한 포항공과대학교 청암학술정보관(이하 '청암학술정보관')도 그렇고 도서관 건물 규모와 내부 시스템이 보통이 아니다. 특히 청암학술정보관 같은 경우 일본디자인협회로부터 2003년 디자인상 동상 수상, 사무환경개선추진협회로부터 제10회 지식오피스 대상도 수상한 바 있으니 필자 개인적인 놀라움만은 아닌 것 같다.

사진에서 보드시피 청암학술정보관은 2층부터 5층까지가 중앙의 개방형 아트리움을 중심으로 모든 공간이 원형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자료열람의 효율화 및 시야확보를 위해 서가배치도 방사선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용자 동선의 최적화를 위해 원형 아트리움을 따라서는 자료검색용 컴퓨터가, 방사선 서가 사이 곳곳에는 열람좌석(총 1,000여석으로 소위 공부방이라 불리는 단한 열람실은 없다.)이 혼합 배치되어 있으며, 한 층에 관련자료

가 함께 배치되어 있다(2층 참고자료, 3층 단행본, 4층 연속간행물, 5층 멀티미디어자료).

또한 이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그룹스터디실, 무인대출·반납기, 복사프린터실, 음수기, 공중전화 등도 각 층마다 동일한 위치에 배치되어 있다.

이용자 편의성 강조와 더불어 청암학술정보관이 기존의 무은재기념도서관(무은재기념도서관은 1987년 개교 이래 15년간 중앙도서관의 역할을 해 왔으며 현재는 리모델링 작업 중으로 강의실 등으로 사용될 계획임. '무은재'는 김호길 초대 총장의 호)과 비교해 크게 달라진 점은 최첨단 인텔리전트빌딩 기능을 갖추으로써 24시간 도서관 개방이 가능해졌고 이로써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전 세계와 자유롭게 학술·연구 활동이 가능한 'U-library' 개념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필자는 최근 도서관계에서 발표되는 글들을 보며 전자도서관, 디지털도서관, 가상도서관 등은 서서히 논의 대상에서 사라지고 이제는 대신 인터넷의 보급과 도서관의 디지털화




〈이용자들의 휴식공간인 6층 사이버 카페. 카페 외부의 옥상 정원도 아름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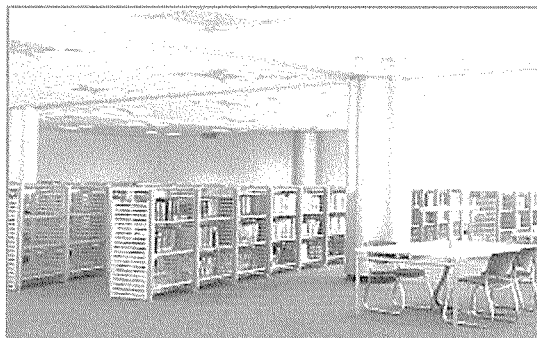
에 따라 시공간을 초월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개념의 '유비쿼터스 도서관' (ubiquitous-library, 약칭 u-library)이란 용어가 유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하였는데, 청암학술정보관에서 같은 기분을 느꼈다.

청암학술정보관 주 출입구인 5층과 6층 사이 버카페는 1년 365일 24시간 개관되고 있는데(추석 및 신·구정은 제외, 2층은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3-4층은 오전 8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 직원의 야근 없이 24시간 개방을 가능케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최첨단 빌딩 기능 때문이다. 각 층 개관시간에 맞추어 작동되는 조명, 엘리베이터, 비상계단문, 움직이는 물체만을 찍어내는 50여대의 무인카메라, 채광, 환풍, 냉·난방 모두 자동. 물론 캠퍼스 내 어디서든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모든 형태의 자료검색과 대출 예약 신청·연장이 가능하고, 강의지원서비스·정보조사서비스·맞춤형 이용자 교육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건립 준비부터 무은재기념도서관에서의 이전 작업까지, 지면 관계상 밝히지 못한 내용은 책자 『청암학술정보관 건설지』(포스코건설, 2003), 『청암학술정보관 건축보고서』(포항공과대학교학술정보원, 2003)와 논문 '대학도서관의 효율적인 이전에 관한 연구' (제41회 전국도서관대회 주제발표논문집, 113-152쪽, 한국도서관협회, 2003)를 살펴보기 바란다. 도서관 신축 및 이전작업을 앞둔 기관들에게는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요즘 대학도서관들은 도서의 수집과 관리중심이라는 소극적 개념으로부터 이용자 서비스 중심이라는 적극적 개념으로 역할 전환을 하고 있으며, 사서의 주제전문화를 위해 애쓰고 있다. 이미 최상의 시설과 장서 수준(10여개 학과, 교수·학생 3천여명 규모에 1년 자료구입비가 25억원에 달한다.)을 갖춘 청암학술정보관도 예외는 아닌 듯 싶다. 사서들도 화학, 수학, 물리, 컴퓨터공학 등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을 지향하는 포항공대의 목표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도서관 건축에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청암학술정보관의 앞으로의 행보가 디지털 시대 대학도서관의 위상과 정체성 찾기에 고민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올 지 사뭇 기대된다. 

〈글: 박경아 기획·홍보팀장, 사진: 심효정〉



〈포스코의 이미지와 도서관의 미래 지향적 의미를 담아 개발한 도서관 금속가구〉



〈토론 또는 회의·학습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그룹스터디룸. 도서관 35층에 배치되어 있으며, 4인실에서 24인실까지 총 26실 284석 운영〉